

冠岳語文研究 第1輯

萬海詩의 發展過程考 序說

——「心」에서 詩集「님의 沈默」에 이르는 距離——

鄭 漢 模

1976. 10



# 萬海詩의 發展過程考 序說

—「心」에서 詩集「님의 沈默」에 이르는 距離—

鄭 漢 模\*

## 1.

일찍이 佛道에 몸을 담아 한국 불교계의 大禪師로 일생을 마치는 동안 「朝鮮佛敎維新論」 「佛敎大典」 등 著書를 통하여 불교학의 大碩學의 자리를 굳혔으며 己未運動의 중심인물로서 민족의 자주독립을 쟁취하고자 앞장선 閔士일 뿐 아니라 「朝鮮獨立의 書」를 써서 이론을 검비한 민족의 지도자이기도 한 萬海 韓龍雲은 또한 詩集 「님의 沈默」을 내놓음으로써 詩人으로서 오늘날 한국의 현대시에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위대한 인물이다.

大禪師로서, 碩學으로서, 또한 革命家로서의 韓龍雲과 詩人으로서의 그가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그 密接한 關聯 아래서만이 그의 詩를 충분히 理解할 수 있을 것이지만 本稿에서는 주로 그의 詩集 「님의 沈默」을 중심으로 하여 그의 詩의 發展過程을 더듬어 보고자 한다.

詩集 「님의 沈默」은 萬海가 남겨놓은 唯一한 詩集이면서 萬海詩의 歷卷인 동시에 한국의 現代詩史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詩集이다. 思想性에 있어서나 表現面에서 그만큼 完熟한 경지를 보여주고 있는

\* 國語國文學科教授(現代文學專攻)

이 詩集이 처음 刊行된 것은 1926年の 일이었다.

詩集「님의 沈默」은 하나의 全作詩集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흔한 例로 몇년동안 여러 紙誌에 한두면씩 발표해온 作品들을 한권의 詩集으로 묶어내는 그러한 詩集이 아니라, 한권의 詩集속에 하나의 主題 아래 連作詩 형식으로 쓰여진 作品을 묶어낸 詩集인 것이다. 따라서 이 詩集을 위해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었고, 집중된 구성과 집필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 증거로서 「님의 沈默」이 詩集으로 刊行되기 이전에는 萬海가 詩人으로서 자처한 흔적도 없으며, 詩壇에서 그를 詩人으로 인정한 자취를 찾아볼 수 없다. 그때까지의 萬海는 禪師로서, 佛敎學의 碩學으로서, 더더욱 3·1운동의 지도자, 혁명의 투사로서 이름 높았던만큼 한 두면의 作品발표가 있었다고 해서 그를 詩人으로 부르기에는 다른 稱號가 더욱 어울리는 위대한 存在였던 것이다.

詩集이 刊行되고 나서도 한동안은 그赫赫한 이름 때문에 萬海의 「詩」와 「詩人」 萬海는 그 이름의 그늘 아래 묻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萬海의 詩가 그 眞價를 인정받은 것은 詩集 刊行 직후부터가 아니라 훨씬 뒤의 일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실제로 詩集이 나온 뒤에도 萬海는 詩人으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이 거의 없었다. 詩集 「님의 沈默」에 匹敵할만한 作品도 이를 능가할만한 作品도 계속 발표되지 않았다. 그런점에서 미루어 보더라도 詩集 「님의 沈默」의 詩篇들은 참으로 萬海詩의 珠玉篇들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어떻게 보면 突出한 高峰이라고도 볼 수 있다.

萬海詩가 詩集 「님의 沈默」에 到達하기까지의 發展過程을 究明하고자 하는 것이 本論考의 의도이지만 여기서는 紙面관계도 있어 그 序說에 해당되는 문제의 제기에서 그치게 될 것이다.

## 2.

萬海의 詩作品이 처음 活字化된 것은 萬海 자신이 主宰한 雜誌 「唯心」誌上에서였다. 여기에 萬海는 <心>이란 詩를 발표하였다. 「萬海」란 號로 발표한 이 作品의 全篇은 다음과 같다.

<心><sup>1)</sup>

萬 海

心은心이니라  
 心만이心이아니라非心도心이니心外에는 何物도無하니라  
 生도心이오死도心이니라  
 無窮花도心이오薔薇花도心이니라  
 好漢도心이오賤夫도心이니라  
 巖樓도心이오空華도心이니라  
 物質界도心이오無形界도心이니라  
 空間도心이오時間도心이니라  
 心이生호면萬有가起호고心이息호면一空도無하니라  
 心은無의實在오有의眞空이니라  
 心은人에게淚도與호고笑도與호니라  
 心의墟에는天堂의棟樑도有호고地獄의基礎도有하니라  
 心의野에는成功의頌德碑도立호고退敗의紀念品도陳列하니라  
 心은自然戰爭의總司令官이며講和使니라  
 金剛山の上峰에는魚鱗의化石이有호고大西洋의海底에는噴火口가有하니라  
 心은何時라도何時何物에라도自體뿐이니라  
 心은絕對이自由며萬能이니라

이 작품은 萬海의 成長過程을 살펴보면 좋은 座標가 될 것이다. 그의 精神의 타탕은 이미 이 작품에도 나타나 있지만 詩로서는 그의 詩集 「님의 沈默」 수록 작품들이 지니고 있는 水準에 비해 많은 距離가

1) 「唯心」創刊號(1918. 9. 1).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心〉에서 「님의 沈默」에 이르는 距離가 바로 萬海詩의 發展의 里程距離라고 할 수 있다. 그 里程距離 안에서의 發展過程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詩集 「님의 沈默」 가운데에서도 構成이나 表現의 技法 및 思想性的 昇華에 있어서 거의 完熟한 경지를 보여주고 있는 〈알스수 업서요〉를 〈心〉과 對照해 보면 그 隔差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바람도업는공중에 垂直의波紋을 내이며 고요히써러지는 으동일은 누구의 발자취입닛가

지리한장마맞해 서풍에몰려가는 두서운검은구름의 티진뵈므로 언뜻々々보이는 푸른하늘은 누구의얼굴입닛가

꽃도업는 깊은나무에 푸른이끼를거쳐서 옛타워의 고요한하늘을 슬치는 알스수업는향기는 누구의입김입닛가

근원은 알지도못할곳에서나서 둠우리울올니고 가늘게흐르는 적은시내는 구뵈々々 누구의노래입닛가

런뜻가튼발쑈쳐로 갓이업는바다를밟고 옥가튼손으로 솟업는하늘을만지면서 썩러지는날을 곱게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詩입닛가

타고남은재가 다시기름이됩니다 그칠줄을모르고타는 나의카승은 누구의밤을지키는 약한등스불입닛가<sup>2)</sup>

처음 발표된 〈心〉에서는 그 言語表現이 아직 生硬하여, 理念이나 意味의 陳述에 그치고 있을 뿐, 詩語로서의 軟化된 表現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心은 自然戰爭의 總司令官이며 講和使니라」를 비롯한 앞 뒤 句節에서 個性的인 表現이 나타나 있을 뿐, 그밖에는 漢文懸吐의 文體에다가 佛敎의인 理念을 說明하고 있는 것이다. 〈心〉이전에 刊行된 萬海의 著書 「佛敎大典」의 文體와 大同小異하다.

般若經 過去心을 不可得이며, 現在心을 不可得이며, 未來心을 不可得이니라.  
維摩經 心은 內에도 不在하며, 外에도 不在하며, 中間에도 不在하니라.

2) 詩集 「님의 沈默」 (1923—大正15年—5.20, 京城 滙東書館刊) p. 425.

維摩經 心相은 空하여 幻化와 如하니 菩提心도 無하고 聲無心도 無하니라.<sup>3)</sup>  
 勝思惟梵天所聞經 心性은 淸淨하여 垢染이 無하니 瞽컨데, 虛空에 烟塵 雲霧  
 가 覆蔽하여 不明不淨이나 능히 虛空의 性은 不染이니, 一切衆生도 不正한 念이  
 有하여 諸煩惱를 起하나 彼心의 自性의 淸淨하여 可히 染汙치 못할지라<sup>4)</sup>.

「佛敎大典」은 萬海가 藏經(經·律·論) 1천여부를 참조하여, 중요한  
 關鍵을 가려내어 이를 분류 체계화한 것으로 「八萬大藏經」의 축소판이  
 라 할 수 있는 大著로서 「朝鮮佛敎維新論」 직후인 1914년에 發行된 것  
 이다. 經文의 요약인만큼 漢文懸吐의 文體도 상당히 쉽게 풀이된 것이  
 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文體는, 數年後인 1919年 獄中에서 檢事實問에  
 대한 답변 서로 쓰여졌다는 獨立思想의 위대한 經論을 당당히 밝힌 「朝  
 鮮獨立의誓」에서도 큰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

自由는 萬有의 生命이오 平和는 人生의 幸福이라, 故로 自由가 無한 人은 死骸  
 와 同하고 平和가 無한 者는 最苦痛의 者라 壓迫을 被하는 者의 周圍의 空氣는  
 墳墓로 化하고 爭奪을 事하는 者의 境涯는 地獄이 되느니 宇宙의 理想의 最幸福  
 의 實在은 自由와 平和라. 故로 自由를 得하기 爲하여는 生命을 鴻毛視하고 平和  
 를 保하기 爲하여는 犧牲을 甘飴嘗하느니 此는 人生의 權利인 同時에 또한 義務  
 일지로다<sup>5)</sup>.

文章의 內容은 많이 現代化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漢文懸吐의 文  
 體는 如前하다. 이러한 글들 모두는 詩文이 아닌만큼 이러한 글로서  
 〈心〉과 〈알 수 없어요〉 사이의 距離를 測定하여 이를 좁힐 수는 없지만  
 詩 〈心〉에서 보여준 表現意識이나 方法이 1920年 前後까지 크게 달라지  
 지 않았다는 傍證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보다도 〈心〉과 〈알 수 없어요〉 사이에 萬海는 한편의 詩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것이 더욱 그 中間的 存在로서 萬海詩의 발전과정을 살피는

3) 韓龍震 全集 (新丘文化社刊) 3卷(「佛敎大典」 第二 敎理綱領品 第2章 人心  
 第1節 人心의 體性. 1. 心體의 無相) p. 34.

4) 前揭全集(同上 3. 心體의 本淨) p. 36.

5) 全揭全集 1. (「朝鮮獨立의 誓」—原文—概論 — 序頭) p. 354.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1 운동 직후 囹圄의 몸이 되고 나서 3년의 獄苦를 치르고 1922년 3월 자유의 몸이 된 萬海는 獄中에서 썼다는 <無窮花 심으과저>를 (獄中詩)라고 밝히고 그해 9月號 「開關」誌上에 발표하였다.

달아달아밝은달아 옛나라에비춘달아 쇠창을넘어와서 나의마음비춘달아 柱樹  
나무비허네고 無窮花를심으과저

◇

달아달아밝은달아 님의거울비춘달아 쇠창을넘어와서 나의몸에인긴달아 이준어  
집잇술세에 사랑으로도우과저

◇

달아달아밝은달아 가이업시비춘달아 쇠창을넘어와서 나의턱을쏘는달아 구름재  
(嶺)를넘어가서 니의밋을따르과저<sup>6)</sup>

<心>과 <알수 없어요>의 中間的 존재로서의 이 작품은 漢文懸吐식 문체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우리의 고유한 리듬을 살리고 있는 점에서도 詩에 接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全集에서도 이를 「時調」란에 묶어놓을 만큼 <알수 없어요>를 비롯한 「님의 沈黙」의 詩篇들이 지니고 있는 散文律的 리듬이나 그 表現技法에 비하면 아직도 많은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알수 없어요>에서는 「오동잎」「하늘」「향기」「저녁놀이」「가슴」등의 이미지 형성을 위한 섬세한 구성, 그리고 생동감있게 마련한 이러한 이미지들을 각각 「발자취」「얼굴」「입김」「노래」「詩」「등불」과 결합시켜 메타포의 표현효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을 뿐더러 나타내고자 하는 詩人의 사상을 이러한 이미지와 메타포 뒤에 숨기면서도 부드러운 女性的 設疑의 방법으로 호소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님의 沈黙」水準作的 발전과정을 (獄中詩) <無窮花를 심으과저> 한편만으로 그 실마

6) 「開關」第27號 (1922. 9) p. 12 (文藝欄) 여기에서는 韓龍張으로發表되고 있다.

리를 풀기에는 아직도 막연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本論考는 이 좁힐 수 없는 距離를 다른 側面으로부터 보다 多角的인 探索으로 解決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전제적 결론에 우선 도달하게 된다. (以上 序說 끝)